

지역 매 아리

유진섭 정읍시장, 도민체전 출전 선수 방문 안전 당부

유진섭 시장이 제6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3~4종목의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을 찾아 격려 활동을 펼치며 대표 선수들과 함께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체전에는 육상과 축구, 테니스 등 8종목 68명의 선수가 입원이 참석하며 종합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선수들은 얼마 남지 않은 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유 시장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시를 대표하는 만큼 패어플래이 정신으로, 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경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출전 종목 담당 부서를 지정, 훈련장 격려 방문과 대회 당일 현장 응원 등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다.

한편 제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웅비하는 찬란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고창군에서 열린다. 14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모두 1만여 명이 참가해 모두 38개 종목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슈메이커 양성 본격 추진

정읍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슈메이커(Shoe Maker/수제화기술인력)의 본격적인 양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까지 1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이달부터 수제화기술인력 양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 슈메이커 양성사업은 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제화 장인들의 1:1 도제 방식의 메이커(maker)교육을 통해 슈메이커를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청년 슈메이커 양성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메이커 양성을 위해 청년메이커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비 7억원을 포함 총 12억원을 들여 2020년에는 2층 규모의 기술교육장과 창업공간이 조성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이커의 양성 및 안정적인 창업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외에도 전북세화방직로 지원사업과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용·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 등을 지원해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6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축제장을 고창전역으로 확장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고창 청보리밭 축제, 10%할인쿠폰 음식점·관광지 사용 잇따르며 방문객·상가 모두 만족

올해 '제16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축제장을 고창전역으로 확장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고창청보리밭축제'는 25만평 광활한 대지의 청보리와 유채꽃이 장관이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 농업축제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을 고창군 전체로 확대하는 신선한 시도가 진행됐고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고창군은 축제기간 중 청보리밭 행사장 방문객에게 관내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32곳, 풍천장어전문점 24곳)과 숙박업소 이용시 10%할인 쿠폰을

나눠줬다. 고인돌박물관과 고창읍성 무료입장, 석정휴스파와 상하농원 입장도 30%할인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행사장에서 다소 떨어진 선운산이나 고창읍내의 음식점까지 직접 찾아와 쿠폰을 사용하고, 인근의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실제 지난 연휴(4~6일) 고창읍내 곳곳에서 할인쿠폰을 사용하거나, 사용법을 문의하는 모습이 했다.

특히 올해 첫 선을 보인 '청보리밭 황금순과 트리아트'는 축제기간 중 SNS를 뜨겁게 달구며 '내박을 터뜨렸다. 이는 자연스럽게 행사장 체류시

간을 늘리며 그간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여유롭게 머물며 즐기려는 명품 여행지'로 변모했다.

메인 행사장에서 음식부스를 운영중인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즐겁고, 재미난 표정의 관광객들이 훨씬 늘었다"며 "당달야 매출도 전년 대비 50%이상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체계화된 교통안내와 확충된 관광객 편의시설(화장실, 물품보관소, 수유실)등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제16회 청보리밭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달고 맛있는 고창수박 만나보세요"

당도 13브릭스 이상으로 염선... 전국 최고의 맛과 향 자랑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명품 수박이 본격 출하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을 알렸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름철 대표 과일인 '고창 성내 스테비아 수박'이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6월까지 본격 출하된다.

올해 고창수박 출하는 지난해 대비 20일 정도 빠른 것으로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 지친 전국 소비자들의 심신을 달래줄 전망이다.

고창 '스테비아 수박'은 국화과 다년생 허브식물인 스테비아를 액비로 활용해 당도를 높였고, 식이섬유 등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수박으로 자리매김했다. 스테비아 수박의 당도는 13브릭스(Brix)로 설탕의 200배지만, 칼로리는 설탕의 1%에 불과해 여름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6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고 브랜드

드 파워로 귀농귀촌 농가의 유입과 이들의 조기정착에도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밖에 오는 15일에는 성내면 작은 수박(블랙망고), 25일 이후에는 무장, 공음면에서 재배되고 있는 애플 수박도 시장에 나오면서 고창수박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고창 수박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회, 농생명 산업 살리기 발 벗고 나서

고창군이 군의회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국가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7일 군에 따르면 고창군은 최근 조규철 고창군의회장을 비롯해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과 김이중 농수산경제국장 등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이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조규철 군의장 등은 농림부

관계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쌀 전문 도정시설, 고구마 가공산업 등을 중심으로 고창군의 식량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설명했다.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장은 "농업인 모두가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읍, 첫 모내기 시작... 풍년수확 기원

부안읍에서는 최근 한영덕, 정동근(용계마을) 씨 농가에서 첫 모내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모내기 품종은 조랭이벼로,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추석 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어 안전사고가 빈번한 5~8월에 특히, 일

손이 바쁜 농가들이 지치 농치기 쉬운 농기계안전사고 등 주의도 요구된다.

김현철 부안읍장은 "올 한해도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농가에서도 모내기, 수확 등 시기에 맞는 영농으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글로벌 축제로 '우뚝'

부안오복마실축제 성료... 전국 대표축제 발판 마련 총 20여만명 방문, 수습역원의 직·간접 경제효과 창출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안마실축제는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40여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해 축제장 곳곳에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전국 대표축제 도약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실제 부안마실축제 제2위원회는 올 축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가운데 부안 매창공원 주 무대에만 20여만명이 찾아 수습역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행사장인 부안 매창공원 메인무대에는 각종 퍼포먼스와 예술축제, 전시·판매 및 공연·경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축제 첫날인 4일에는 마실 춤 퍼레이드 경연대회와 개막 축하공연, 마실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수만여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둘째 날인 5일의 경우 전국 청소년 예능 경연대회와 봄날의 OST 콘서트, 마실 열린음악회 등 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특히 올 부안오복마실축제에는 5개국 9개 매체 외신기자클럽 기자들도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부안을 찾아 글로벌 축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봄마실 하모니와와 마실 대동한마당, 마실 품짓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다.

폐막식의 하이라이트인 마실 대동한마당에서는 각자 개성 넘치는 가면을 준비한 민여명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관광객까지 참여를 이끌어내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한마당을 연출했다.

이처럼 올 부안마실축제는 성공리에 치러지면서 직간접 경제효과만도 수습역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부안의 관광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민의 화합과 단결 등 무형의 효과는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gift set options.